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부엌에도 대문에도 샅샅이 모양으로 써 붙여 놓았다.
대우이 들어오는 기운을 더 돋아서 받든다는 뜻이 있는 거다.
올 한해 고객님 댁에도 대길 대우 하시길 기원한다.

썩 캐러 나가신 팔십 노모께서 욕심을 부리시느니
검심때가 되어도 오시길 바랍니다.
뜰에는 나뭇 천지가 될 것이 틀림없다.

어머니를 찾아 나서는 길에 살펴보니 하우스 뒤편에
어느덧 냉이가 수줍게 하얀 안개꽃처럼 피었다.
보름 이상 빠르게 시작하는 것 같다.

올해는 얼음조차 구경하기 어렵다.
따뜻하다.
심지어 눈이 와야 하는데 비가 온다. 사흘, 나흘씩 온다.

땅은 이미 녹아서 숨을 쉰다.
버섯나무도 빨리 준비해야 하고 포도는 싹뭉치 준비도 해야 한다.
봄이 빨리 오니 몸만 바쁜 게 아니라 농사 순서도 뒤죽박죽이다.

봄빛 아지랑이
산에 걸치고
흔들리는 매실 꽃
봄 그대 향하여
산 너머 봄기운에
노래한다.
웃음도 배달하며.....